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2020년 1월 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 6.(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1. 6.(월)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김규성 과장(044-203-4080)	담 당 자	위성원 사무관(044-203-4086)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20. 1. 6.(월)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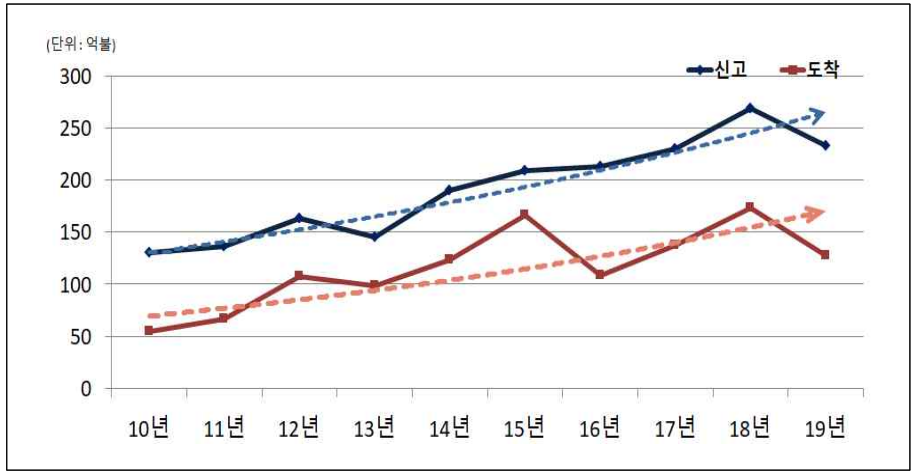
○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INSC)와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연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

○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12월 31일까지의 잠정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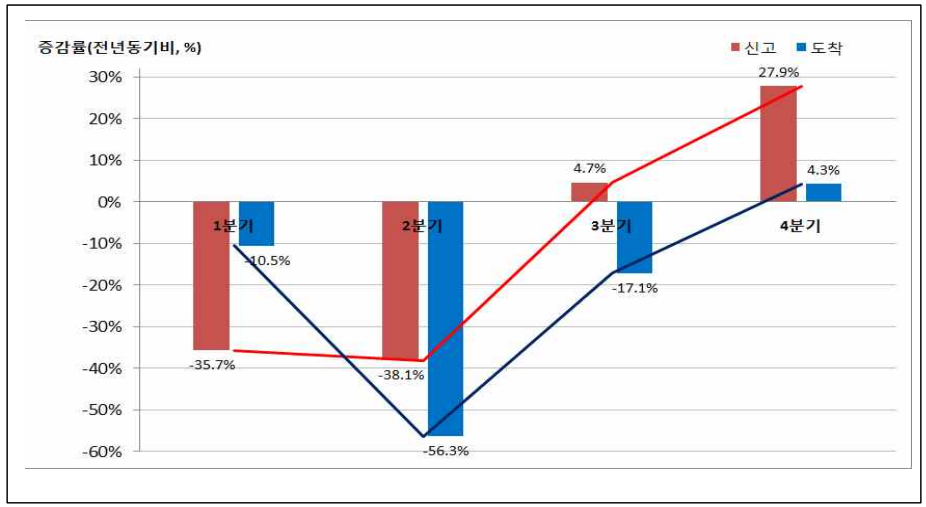
○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분기 발표**되며, **'20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0년 4월 중순경 발표예정**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징

1 "5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 장기 상승추세 유지



2 상반기 침체, 하반기 회복의 상저하고(上底下高) 흐름



‘19년 외국인직접투자, 233억불로 역대 2위 실적

- “5년 연속 200억불” 달성으로 200억불대 외국인투자 안정화 단계 진입 -

-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신산업·고급소비재 투자 활발 -

Ⅰ. 종합

□ **‘19년 외국인직접투자(외투)** 실적은 **233억불(신고기준)**로 **역대 2위***를 기록하여 **“5년연속 200억불”**을 달성(도착기준 128억불로 역대 4위)

* 연간 외투 순위: ①('18) 269.0 ②**('19) 233.3** ③('17) 229.5 ④('16) 213.0 ⑤('15) 209.1억불

* 최근 3년('17~'19년) 동안 역대 1~3위 실적을 기록

○ 다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18년***에 비해 **13.3% 감소**(도착기준: △26.0%)

* ‘19년 이후 예정된 외투기업 법인세감면 혜택 폐지를 앞두고 ’18년에 조기신고, 초대형 프로젝트(한국지엠, 36억불) 성사로 이례적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

○ ‘19년 실적은 **최근 5년 평균치**(230.8억불)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로, 산업부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해서 외국기업들이 매년 200억불 이상을 투자**해 온 만큼, **이제 외투 200억불대 유치 기조가 안착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

【 최근 10년('10-'19) 외투 실적 (단위 : 억불)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평균	10년평균
신고	130.7	136.7	162.9	145.5	190.0	209.1	213.0	229.5	269.0	233.3	230.8	192.0
도착	54.5	66.6	107.2	98.9	123.4	165.9	108.0	137.5	172.6	127.8	142.4	116.2

□ ‘19년 외투는 상반기에 다소 낮은 실적을 보인 반면, 하반기 들어 실적이 개선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흐름을 보임

【 2019년 분기별 외투 유입 추이 (단위 : 억불, %)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신고	31.7	△35.7	67.0	△38.1	36.1	4.7	98.4	27.9	233.3	△13.3
도착	27.9	△10.5	31.3	△56.3	16.8	△17.1	51.9	4.3	127.8	△26.0

○ 상반기에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투자수요 감소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 ‘19년부터 **법인세감면**이 **폐지**되면서 한국투자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관망세**가 있었으나,

○ 하반기 들어 **증액된 현금지원**을 **인센티브로 활용**해 **정부·지자체 등이**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선 결과 상승세로 전환됨**

- 또한, 그간 **자금조달·기업결합심사** 등의 문제로 **다소 지연**되던 **대형 인수·합병**이 **연속적으로 신고**되며, **4분기에는 역대 4분기 실적 중 최대 실적***(98.4억불)을 기록

* 4분기 외투 실적 순위 : ①**('19) 98.4** ②('17) 93.6 ③('18) 77.0 ④('15) 76.4 ⑤('99) 70.7억불

□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역대 2위 외투 유치실적을 기록해 장기적 상승추세 유지**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외투 감소세, 일본 수출 규제 등

○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①**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②**고기능성 플라스틱·폴리머**, ③**시스템반도체**(전력용반도체) 등의 업종에서 **핵심소재 공급안정화와 국산화**에 기여하는 우수 프로젝트가 성사

○ 기술개발·연구 분야에서는 **글로벌 반도체장비 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국내에 유치했고,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분야 투자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3.6→7.9억불)

○ 그 외, **고급소비재**(케이-뷰티·푸드·컬쳐 등), **정보기술**(IT)**플랫폼**(콜드체인, 공유경제, 숙박 등)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가진 국내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인수·합병 진행**

Ⅱ. 투자사례로 본 주요 특징

1 첨단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를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기업**들의 대한(對韓)투자가 지속되어 **외투 측면**에서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음

○ **첨단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동력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를 통해 **국내 수요기업과의 서플라이 체인을 공고**히 하고 **혁신성장**에 기여

〈첨단 소재 · 부품 · 장비 투자사례〉

- **(U사)**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분야 글로벌 선두기업의 생산거점 구축(독일, 0.2억불)
- **(L사)** 스마트폰, IoT기기용 초소형 전력반도체 제조기술 상용화(미국, 0.1억불)
- **(S사)** 프리미엄 실리카 생산설비 증대를 위한 추가투자(프랑스, 0.7억불)
- **(P사)** 국내 스페셜티 화학소재 생산기술과 해외자본을 결합한 합작투자(쿠웨이트, 4.6억불)
- **(M사)** 철과 구리를 혼합한 금형소재 용도의 합금 신소재 생산을 위한 설비(일본, 0.1억불)

2 글로벌 기업 연구개발센터, 신산업유치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 기여

○ **부가가치**와 **기술집약도**가 높은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파급효과**와 **유발투자**를 통해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성장**과 **기술수준 고도화** 지원

○ 특히, **글로벌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의 연구개발센터**를 국내에 유치하여 **기술개발 거점**으로서 한국의 매력도를 재확인

〈R&D · 하이테크 신산업 투자사례〉

- **(L사)** 첨단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구축 위한 투자(미국, 1.4억불)
- **(B사)** 스마트 캐빈, 자율비행 등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구축(영국, 0.1억불)
- **(H사)** 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종을 표적화하여 치료하는 항암제 개발(미국, 1.6억불)
- **(W사)** 사물인터넷으로 원격조종 가능한 초소형 입는 디지털 의료기기 생산·판매(독일, 0.2억불)
- **(S사)**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을 위한 투자(아일랜드, 1.9억불)
- **(I사)** 최첨단 선진물류시스템의 중심역할을 하는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헝가리, 5.6억불)

3 정보기술(IT)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기업 인수·합병 투자유치 확대

○ **정보통신기술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아이템에 인수·합병 수요가 증가하여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수요대응 위해 **공유경제**(주방, 모빌리티 등), **생활서비스**(배달, 숙박, 여행 등) 등 **모바일 플랫폼 투자**가 다수 유입

〈정보기술서비스 · 모바일 플랫폼 투자사례〉

- **(T사)** 빅데이터 기반 요식업 컨설팅 서비스를 국내출시하기 위한 투자(미국, 2.0억불)
- **(D사)** 글로벌 배달앱 기업의 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투자(독일, 1.4억불)
- **(L사)** 국내 및 아시아 공유 모빌리티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네덜란드, 0.1억불)
- **(W사)** 시장점유율·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행상품 온라인-오프라인플랫폼 투자(몰타, 1.5억불)
- **(J사)** 가상현실홈투어·빅데이터로 부동산을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증액투자(싱가포르, 0.1억불)
- **(C사)**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증액투자(미국, 6.8억불)

4 한류와 연계한 고급 소비재·문화상품 투자 유치 확대

○ **국내·외 시장수요 고급화**에 따라 **케이-뷰티, 케이-푸드, 케이-팝** 등 세계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국내 **소비재·문화상품 기업**에 외국투자가의 투자가 활발하게 유입

○ **스타트업의 기업성장**(scale-up)을 위한 **재무적 투자**, 국내 기업과의 **합작투자·인수합병**, 공연장 건립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가 성사

〈고급 소비재, 문화상품, 유망기업 M&A 투자사례〉

- **(H사)** 국내 유망 뷰티기업에 대한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인수합병(영국, 11.3억불)
- **(C사)** 국내 게임개발사와 공동출시 등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위한 투자(홍콩, 1.3억불)
- **(W사)** 합작으로 설립된 차량용 선루프 제조업체의 국내지분 완전매입(독일, 1.6억불)
- **(T사)** 국내시장의 성장성을 고평가한 사모펀드의 커피전문점 지분인수(몰타, 2.1억불)
- **(C사)** 실시간 공연장, 스튜디오를 갖춘 복합문화단지 조성 위한 투자(싱가포르, 0.2억불)

Ⅲ. 전망과 향후계획

1. '20년 외투 전망

□ **(글로벌 외투)** 글로벌 외투는 '18년에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19년 상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modest recovery)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19.6월, UNCTAD)

* 글로벌 외투 규모(조불): ('15) 2.03 → ('16) 1.92 → ('17) 1.50 → ('18) 1.30 → ('19.상) 0.64

○ 다만, 미·중, 미·유럽연합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불확실성**이 **글로벌 외투 성장에 여전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외투)** 대내·외적으로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이 상존***하여 '20년 외투는 **금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긍정)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투 인정(외촉법 통과시), 높은 대외 신용도 유지 등
(부정)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상존, 일본수출규제 지속 등

2. 향후계획

◈ **소재·부품·장비, 신산업(미래차, 수소경제, 바이오, 정보기술 등),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등 우리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❶ **(인센티브 강화)**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현금 지원 상향**, **첨단 기술투자 현금지원 확대** 등 **첨단업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전략품목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상향(투자금액의 30→40%) 및 현금지원 대상 확대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업종 2,990개 추가)

❷ **(선제적 유치 활동)** 미국, 유럽연합 등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설명회 개최**와 함께 첨단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정부·지자체·유관기관 합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투자 애로 해소

❸ **(재투자 확대)** 기(旣)투자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를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1:1 개별상담회, 순회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추가 투자 수요를 발굴

* 사내유보금 재투자를 외투로 인정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중(현재 국회 계류중)

Ⅳ. 세부동향[국가별 · 업종별 · 유형별]

1. 국가별 (신고기준, 전년동기대비)

1 미국 : 신고 68.4억불(+16.4%), 도착 13.5억불(△64.6%)

○ (업종별) 제조업 증가(19.5억불, +9.7%), 서비스업 증가(48.8억불, +20.7%)
○ (유형별) 그린필드형 증가(67.2억불, +36.3%), 인수합병형 감소(1.3억불, △86.8%)

2 유럽연합(EU) : 신고 71.3억불(△20.1%), 도착 69.9억불(+27.7%)

○ (업종별) 제조업 감소(33.1억불, △11.1%), 서비스업 감소(37.3억불, △9.0%)
○ (유형별) 그린필드형 감소(23.1억불, △59.2%), 인수합병형 증가(48.2억불, +48.1%)

3 일본 : 신고 14.3억불(+9.9%), 도착 10.3억불(△0.6%)

○ (업종별) 제조업 감소(2.8억불, △58.2%), 서비스업 증가(11.4억불, +80.4%)
○ (유형별) 그린필드형 감소(8.7억불, △21.2%), 인수합병형 증가(5.6억불, +187.7%)

4 중국 : 신고 9.8억불(△64.2%), 도착 1.9억불(△76.2%)

○ (업종별) 제조업 감소(5.8억불, △32.8%), 서비스업 감소(4.0억불, △78.4%)
○ (유형별) 그린필드형 감소(8.9억불, △66.4%), 인수합병형 감소(1.0억불, △8.6%)

2. 업종별 (신고기준, 전년동기대비)

1 제조업 : 신고 82.2억불(△18.2%), 도착 46.8억불(△33.1%)

○ (증가업종) 화공(18.2→39.5억불), 식품(2.2→5.5억불), 의약(0.2→3.3억불)

○ (감소업종) 운송용기계(51.1→8.7억불), 금속·금속가공제품(3.6→0.2억불)

2 서비스업 : 신고 147.6억불(△5.3%), 도착 73.2억불(△27.9%)

○ (증가업종) 도·소매(16.0→34.7억불),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3.6→7.9억불)

○ (감소업종) 금융·보험(48.9→28.6억불), 정보통신(31.2→20.4억불)

3. 유형별 (신고기준, 전년동기대비)

1 그린필드형 : 신고 159.1억불(△20.5%), 도착 61.1억불(△49.3%)

○ (업종별) 제조업 감소(74.8→46.2억불), 서비스업 감소(120.3→109.9억불)

- (증가업종) 도·소매(9.2→25.4억불), 기계장비·의료정밀(7.0→10.1억불)
- (감소업종) 운송용기계(37.9→6.7억불), 금융·보험(31.3→11.7억불)

2 인수합병형 : 신고 74.2억불(+7.6%), 도착 66.7억불(+27.8%)

○ (업종별) 제조업 증가(25.7→36.0억불), 서비스업 증가(35.6→37.7억불)

- (증가업종) 화공(9.0→29.4억불), 도·소매(6.8→9.3억불)
- (감소업종) 운송용기계(13.2→2.0억불), 전기·가스(7.6→0.4억불). <끝>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위성원 사무관(☎ 044-203-40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